

찬 송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다 같 이

주 기 도 문 다 같 이

- 찬 송 (다같이) : 305장
- 주기도문 (다같이)

찬 송 다 같 이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성 시 교 독 감사절(1) 다 같 이

인도자 :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회 중 :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인도자 :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회 중 :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인도자 :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회 중 :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인도자 :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회 중 :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인도자 : 여호와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도

다같이 :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기 도 가 족 중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언제나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내려 주시고, 성령께서 늘 우리를 인도하셔서 평안과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형제, 일가친척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주님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고, 또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충분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세상을 능히 이겨낼 주의 자녀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시편 121:1~8 인 도 자

- 1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 2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 3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 4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 5 여호와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 6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 7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 8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말 씀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가정 인 도 자

곡식이 무르익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추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없고, 모든 모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가족들과 도란도란 모여 앉아 은혜를 나누며 함께하는 일도 이젠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21편은 큰 위로를 건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순례자들이 성전을 찾아가면서 부르던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예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나라를 떠나 머나먼 타국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다가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찾아 먼 길을 나선 사람들, 그들이 바로 순례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정 가운데 힘든 고비를 만날 때마다 부르던 노래가 바로 오늘 읽은 시편 121편입니다. 수많은 산을 넘고 넓은 들을 지나야 그토록 바라던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기에 그들의 여정은 늘 험난하고 고달팠습니다.

그런 그들이 높은 산의 문턱에서 산을 바라보며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순례자들의 앞에 산이라고 하는 큰 어려움과 환난이 닥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높은 산을, 환난을 이겨내고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산이 높고 강해보여서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꼭 저 산을 넘다가는 내가 쓰러질 것 같아서 두려워하며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을 바라보며 탄식하던 순례자의 눈이 산 위에 있는 하늘에 다다랐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던 눈이 그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닥친 큰 환난을 이길 힘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때의 마음과 감사의 고백을 담아 노래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순례자들을 도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순례자들을 가로막고 있는 산이 아무리 높다하여도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은 산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기억해야 한 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큰 환난과 어려움의 산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힘써 보십시오. 더 이상 우리에게 닥친 문제로 인하여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위협하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수많은 삶의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으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의 삶과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 도 인 도 자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절망과 어려움에서 벗어나 주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